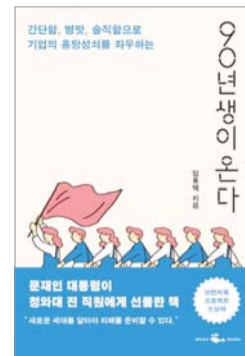


우리 조직의 미래, 90년생을 대하는 즐거운 자세



리더의 책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90년생이 온다
임흥택 지음/웨일북

요즘 온라인상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의 글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로 젊은 직장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근무하는 조직에서도 블라인드에 가입한 직원들이 있고, 익명성의 그늘에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강경한 어조로 표출되고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해 60년~80년대생 직원과 90년대생 직원간에 속앓이를 한다고 들었다.

서강대 이철승 교수가 쓴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을 보다 보니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들이 소수의 몇몇 젊은 직원들의 불만만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우리 조직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같은 부서 같은 생산라인에 속해 있는 50대 김 씨와 20대 박 씨가 있는데, 하는 일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갑이고, 박 씨는 을이라는 것이다. 박 씨의 명줄과 일신은 김 씨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금 더 일찍 태어나서 조금 더 일찍 조직 생활을 한 김 씨가

이러한 90년대생 박 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조직에서 대부분의 경영진은 90년대생 신입사원들을 향해 조직의 발전을 이뤄 낼 우리의 미래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미래인 90년대생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 조직의 미래를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가?

간단, 재미, 정직 세가지 특징으로 90년생 정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생존 가이드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90년대생 우리 젊은 직원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임흥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저자는 90년대생이 '간단', '재미', '정직'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정의한다.

90년대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책보다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

이다 보니 장문의 텍스트를 읽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생각해서 'F자 읽기'와 같은 신기술을 사용하고 스압(스크롤 압박) 때문에 긴 글은 세 줄로 요약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 세대는 간혹 "직장이 장난이냐"라는 선배의 질책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생 젊은 직원들은 직장이 장난처럼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들에게는 아주 형식적이어야 할 직원 공고도 재미있으면 인기가 있다. 한 기획자가 '병맛 채용 공고'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등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 중 우대 조건이 '돈까스, 순대국, 카레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재미로 인해 작은 규모의 낮은 인지도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또 90년대생들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완전무결한 정직을 요구한다. 당연히 혈연, 지연, 학연은 일종의 적폐로 본다는 것이다. 우리 세대와 달리 진실, 신뢰, 공정함 등 본인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시스템을 원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직은 청년이사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이사회는 20~30대 젊은 직원들로만 구성되고 회사 발전과 사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참신하고 솔직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은 상당히 혁신적이기도 하고 엉뚱하지만 기발한 제안들도 있어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될 내용이 많았다.

90년대생 직원들에게 "당신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고 싶은 말 거리낌 없이 다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90년생이 온다'는 그들이 주인이 돼 살아가야 할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고 공정한 그들의 조직을 만들도록 길을 터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다.

주말은 책과 함께

거대한 이주 행렬을 가로막는 것은

생존의 문제 앞에서 이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생즉사 사즉생. 살기 위해 죽고자 하는 각오로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회계사 교육을 받은 장피에르는 아내와 일곱 살짜리 아들과 미국으로 가는 이민 행렬에 몸을 실었다.

다른 이주자들과 함께 콜롬비아의 항구마을에서 출발한 장피에르 가족은 배로 콜롬비아와 파나마의 국경지역인 '다리엔 정글'에 도착한다. 미로 같은 야생의 정글에서 남떠러지를 아슬하게 비껴가며 때로 강도와 마약 밀수업자의 공격을 받았고 밤에는 뱀과 다른 동물을 피해 새우잠을 자야 했다. 식수가 모자라 소변을 받아 마시며 버티는 날도 있었다.

장피에르 가족과 이민 행렬에 오른 100명 중 다리엔 정글을 통과한 사람은 불과 15명 남짓이었다. 목숨을 건 여정 끝에 목표한 곳에 도착해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이주자를 향한 혐오와 배제가 그들을



인류, 이주, 생존
소니아 샤 지음/성원 옮김/메디치미디어

벼랑 끝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며 타 인종에 대한 배제를 객관화하려 했다. 생물 분류법으로 잘 알려진 18세기 스웨덴의 박물학자 칼 린네는 자신의 여행 후원자들을 의식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미족'을 비인간종 괴물인 Homo Monstrosus으로 분류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생학을 근거로 한 이민자 억압이 만연했다. 1924년 시행된 미국의 이민에 관한 법

률인 존슨-리드법은 과학자들이 인종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긴 사람들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이주자 할당량의 80% 이상을 서유럽과 북유럽 출신자들에게 배당했으며 비백인 이주자와 동유럽, 남유럽 출신자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외국인 이민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21세기에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국경을 건너 이동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에는 홍수나 폭풍, 지진 같은 이유로 매년 2600만명이 이동했고, 2015년에는 불안정한 사회의 폭력과 박해 등으로 1500만명 이상이 자신의 나라를 탈출해야 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국가 분쟁과 내전, 심각한 기후변화 속에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한다.

거대한 이주 물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

432쪽, 2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우리의 적들은 시스템을 알고 있다

마르타 페이러노 지음/최사라 옮김/시대의 창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을 정의하는 시스템이자 운영체제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인터넷은 유사 이래 가장 거대한 단일 인프라다.

몇몇 강대국과 초대형 기업이 독점적으로 제어하는 서버와 위성, 안테나, 라우터, 광섬유 케이블의 집합이 인터넷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신종 기술에 대한 중독을 유발하고 소수가 대중의 행동을 설계하는 관심 경제, 첨단 기술이 낳은 생태 오염, SNS를 통한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강대국의 데이터 감시와 반인권, 실리콘밸리 우상들의 실제적 진실 등 신형 디지털 권력의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었던 도구가 어떻게 소수 지배계급과 새로운 형태의 제국을 위해 봉사하게 됐는지 낱알이 까발리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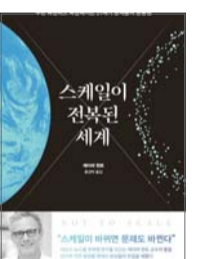
440쪽, 1만9800원

스케일이 전복된 세계

제이미어 헛트 지음/홍경탁 옮김/어크로스

개미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서 진짜 결립들은 개미의 '지능'이 아니다. 개미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책의 크기가 쪼그라들면 책상 사이의 분자 결합이 너무 강해져 개미가 책장을 넘길 수 없고, 글자 크기가 수천 분의 1로 작아지면 1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가시광선의 특성 때문에 글자를 볼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스케일이 바뀌면 문제도 바뀐다. 데이터에서 빅데이터로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막대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긁어모아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 데이터 스케일의 증가가 경제 규칙을 새로 쓴 것이다. 우리가 문제의 스케일과 복잡성에 압도되지 않을 때, 해결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인간의 지각 범위를 벗어난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책. 296쪽, 1만7000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美, ‘중경제 종합세트법’ 마련 중… 국내기업 유의해야”
- ▲ 中 “금융부문 개방 확대… 외국기관 진출규제 완화” /사진 뉴시스

- ▲ 독일 뮌헨에 ‘소녀상’ 전시하자… 日, 또 “철거요구”
- ▲ 日스가, 몽골총리와 회담… ‘외로운 올림픽 외교’ 시작



- ▲ 北 “쿠바 반정부 시위 배후는 미국”… “내정간섭” 비난
- ▲ 음성기반 SNS 클럽하우스 “이제 초대장 필요없어”… 개방형 전환 /사진 뉴시스